

원도심 기억을 담다
도시재생 공간 탐색 (8) 도시재생 상생모루

1 상생모루 전경. 밤이 되면 외벽 조성이 불을 밝힌다.
2 1층에 도시재생 정보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이 전시되어 있다.
3 1970년 준공된 오래된 건물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4 원도심 사람들은 물론 도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1층 라운지, 흑백 사진 등에 담은 원도심 옛 사진전도 진행되고 있다.

칠성로 시작되는 곳에 원도심 쉼터

제주시 칠성로길 1. 그곳에서 칠성로가 시작된다. 옛 제주감귤농협 건물에 들어선 '도시재생 상생모루'다. 맑은 날, 상생모루에 오르면 바깥 풍경 너머로 원도심이 걸어온 지난 시간이 다가온다. 관덕정, 제주목관아, 우체국이 이웃해 있고 북쪽으론 제주북초등학교가 자리했다. '제주도 1호'란 수식어가 붙는 공간들이 그 주변 칠성로, 한빛골에 모여있다. 골목골목엔 그보다 더 많은 사연들이 배어있을 것이다. 상생모루만 해도 1970년 완공해 제주실업주식회사, 대정기업주식회사가 썼고 1991년 제주감귤협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는 상생모루 명칭은 공모를 거쳐 지어졌다. 서로 북돋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을 위한 받침대 역할을 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모루'는 '대장간에서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를 일컫는다.

상생모루는 도시재생 지역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제주도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12㎡ 규모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주감귤 건물에 19억3500만원을 들여 매입했고 15억여원을 투입해 리

주소는 제주시 칠성로길 1 감협 건물 매입 리모델링 회의·교육실 등 시설 개방 지역 커뮤니티 거점지로 제주시 돌봄센터도 입주 모델링했다. 건물 3층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입주해있지만 상생모루는 '모루'를 위한 공간을 꿈꾼다. 원도심 사람들만이 아니라 필요한 도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한다.

1층에는 도시재생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관이 있고 제주책방, 케아트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이 생겨난 공간 모형도 설치됐다. 원도심 답사의 출발지이자 종착지로 방문객들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라운지도 꾸렸다. 동문로터리, 탑동 등 흑백화면에 담긴 원도심 사진은 상설 전시되고 있다. 2층은 크고 작은 마을교육공동체 모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시재생 센터는 이곳에서 청소년 원도심 인문학아카데미, 원도심 연계 진로·직업 체험교육, 청소년 미래대응 교육 등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층엔 소규모 교육프로

그램에 맞춤형 공간이 갖춰졌다. 지하 1층 다목적 강당도 교육·회의실로 빌려 쓸 수 있다.

작년 12월 상생모루의 문이 열린 이래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활동가 통합 워크숍, 어린이놀이교실 교육, 도민 디자인 교실, 인문학 강좌 등이 이어졌다. 얼마 전 상생모루를 찾았을 때는 '마을여행 큐레이터 양성교육'이 한창이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포함 원도심 사람들의 역할을 키우고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교육이 꾸준히다.

근래엔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상생모루에 동지를 틀면서 앞으로 이 공간을 거점으로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12세 초등학생을 연중 모집해 상시 또는 일시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밤이 되면 상생모루 조성이 불을 밝히는 이곳을 변화형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도시재생 사업지 내 여러 시설과 기능을 복합화한 앵커 시설"로 소개했다. 번 사무국장은 "도심의 사랑방처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서 "도민들이 이 공간을 아끼고 자주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충암 적거 터 복원 유배문화 공간으로"

김정 유배 500년 세미나 기록 속 '금강사 옛 절터' 일도1동 새 적거 터 추정 유배 연구 지속 필요성도

제주 유배인 충암 김정의 적거 터를 바로잡고 이를 제주 유배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단법인 제주학회(회장 정광중)가 주최하고 한라산생태문화연구원(이사장 김찬수)이 주관한 '충암 김정 유배 500년' 학술세미나 자리에서다.

지난 30일 제주대박물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라일보 편집국장, 논설실장을 지낸 강문규 작가는 '충암 김정의 적거지 복원·활용을 위한 제안' 주제 발표를 통해 "유적지 표석을 세우는 데 일조했던 사람으로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오류를 바로잡고 이해를 구하려 한다"며 새 적거 추정지로 제주시 중앙로 13길 26-5(일도1동 1486-6) 내팻골 일대를 제시했다. 이는 '제주풍토록'에 나온 "내가 거처하는 곳은 제주성 동문 밖 반리 떨어져 있는 금강사 옛 절터에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강 작가는 "현재 폐가가 된 해당 토지는 30여 평방m 정도이고, 토지 주변 여건도 열악해 매입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거지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보존 관리는 해당 구소(이사장 김찬수)가 주관한 '충암 김정 유배 500년' 학술세미나 자리에서다.

앞서 김일우 제주역사문화연구원 구소장은 '충암의 '제주풍토록' 다시 읽기' 주제 발표에서 '제주풍토록'이 지닌 사료적 가치에 주목했다. 김 소장은 "제주의 기후, 가옥, 신앙, 제주어, 풍속, 민정, 지형, 토산, 서식동식물, 형승, 유배생활로 꾸며진

'제주풍토록'은 김정이 제주에서 유배살이를 하면서 직접 체험하거나, 혹은 얻은 견문의 사실에 근거해 썼다"면서 최초의 제주풍토지이자 16세기 전반 제주의 실정이 생생하게 담긴 데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김정은 성리학적 소양이 깊고, 사후에도 유림으로부터 추앙될 만큼 그 사상에 투철한 인물이었다. 반면 제주는 조선시대 내내 성리학적 이념이 사회문화로서 규범화가 될 진척된 곳이었다"며 "이에 김정은 자신의 주관에 근거해 16세기 전반 제주의 실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게 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충암 김정,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발표한 흥기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은 "지금까지 제주 유배인에 대한 전체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지속적인 유배인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선희기자

31팀 예술인 건강한 성평등 문화 특음

건강한 성평등 문화 메시지를 담은 영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제주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문화예술×성평등 네트워크 인 제주'(www.2020aceinjeju.com) 사업으로 상상창고 순(대표 박진희)이 펼치는 '성평등 문화 특음 31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엔 전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장르의 예술인 31팀이 하

루에 하나씩 1분 분량의 영상 작품을 유튜브(https://youtu.be/ZTu4rOHRMVZA)에 올린다. 10월 31일 변규운 작가의 예고편을 시작으로 강술생, 고보연, 김선영, 김신숙, 김은미, 디팜포, 문재용, 민경연, 문효진, 박순동&김도형, 박주연, 배효정, 성애바, 아우름 in JEJU, 여상희, 연미, 언정, 이경식, 이셋별,

이연숙, YOYOJIN, 예술공간오이, 전리혜, 전찬영, 제주감부훈, 정유진, 정하영, 흥민아, 현유정, TOPIC, 2020 A.C.E가 참여한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예술 활동, 혐오와 차별 없는 일상을 향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 사회를 위한 예술인대 목소리 등을 전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작품은 2021년 1월 31일까지 공유된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p>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공연</p> <p>제주시와 제주4·3평화재단이 공동 기획한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이 이달 7일 오후 5시, 8일 오후 4시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p> <p>현기영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순이삼촌'은 최정훈씨가 작곡했고 성악가 강혜명, 강정아, 김주완, 김신규, 박경준, 윤한성, 양석진, 김광정 등이 출연한다. 지휘는 정인혁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맡는다. 현장 관람은 초대권을 소지해야 한다. 초대권은 3~4일 오후 2~5시 아트센터에서 배부한다. 온라인 공연은 유튜브채널 '와랑와랑제주'에서 볼 수 있다. 문의 728-1509.</p>	<p>노지문화 콘텐츠 마을 공모</p> <p>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마을이 품고 있는 '노지문화' 콘텐츠화 사업에 참여할 서귀포 지역 마을을 이달 4일까지 모집한다.</p> <p>마을이 보유한 돌, 바람, 물, 풍낭, 의식주, 목축, 신화, 역사, 해녀, 민요, 당, 제주어, 동식물, 들장고, 꽃차, 감귤 등 유·무형의 자산을 콘텐츠화하려는 곳이면 신청 가능하다. 계획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red7829@gmail.com)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화도시서귀포 블로그 등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선정 마을에는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한다. 문의 767-9505.</p>	<p>제주 종교계 평화콘서트</p> <p>제주도와 (사)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이사장 이상구 목사)가 공동 주최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평화콘서트'가 11월 2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p> <p>이날 콘서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과 의료진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연진은 개신교 제주CBS아가페 중창단, 원불교 제주원을 중창단, 천주교 펠릭스 중창단, 불교 부르나 스님 중창단, 탐모라솔리스트 앙상블이다. 비대면 무관중 공연으로 유튜브 채널 '와랑와랑 제주'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의 710-3206-8.</p>
--	--	--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모집직종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5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